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과 인성 간의 관계

구옥희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awareness, Self-esteem, Empathy and Character of Nursing Students

Ok-Hee Koo
Department of Nursing, Baekse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2021년 3월 B 대학 간호학과 신입생 203명을 대상으로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과 인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수집된 데이터는 t-검정, ANOVA,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인성은 평균 4.65점(최대 6점)이었으며, 연령, 종교, 간호학과 입학만족도,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 공감이 인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공감이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으며, 간호학과 입학만족도,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연령, 자아존중감으로 설명력은 20.8%이었다. 자기인식은 자아존중감, 공감과 상관관계는 높았으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인성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공감능력 증진,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정체성 형성교육 및 도덕성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내·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awareness, self-esteem, empathy, and character, and to underst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character among nursing students. The study targeted 203 nursing students from B university in March 2021. The t-test,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on the collected data. As a result of the study, character scored 4.65 points out of 6 points, and age, religion, nursing school admissions satisfaction, level of high school achievement, self-esteem, and empathy were seen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character. The main factor influencing character was empathy followed by nursing school admissions satisfaction, high school academic achievement, age, and self-esteem,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20.8%. Self-awareness had a high correlation with self-esteem and empathy, but it did not act as a variable factor affecting charact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ducation program for the enhancement of empathy with a high explanatory power of character, morality cultivation, and identity formation education such as self-esteem. Repetitive research on individual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nd social factors affecting the character of nursing students is suggested.

Keywords : Character, Empathy, Nursing Students, Self-awareness, Self-esteem

본 논문은 2021학년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Ok-Hee Koo(Baekseok Univ.)

email: koh0528@bu.ac.kr

Received March 18, 2021

Accepted July 2, 2021

Revised April 14, 2021

Published July 31,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COVID-19 팬데믹은 전 세계를 패닉상태에 빠지게 하였으며 일상생활의 멈춤으로 인해 많은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보았다. 2020년 한 해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수많은 변화를 경험하였고 이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로 구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뉴노멀 시대로의 보다 빠른 진입을 초래하였다. 또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 블루”라는 정서적 문제가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이 시기에 가장 힘든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의료인이다. 특히 간호사들은 예상치 못한 이런 사회적 재해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본분을 잊지 않고 최선의 역할수행으로 국민들로부터 “덕분에 쉼iliz”라는 감사를 인정받고 있다.

뉴노멀 시대 COVID-19로 인한 변화 중 주목할 부분은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이다[1]. 보건의료 분야도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화가 본격화 되고 있으며[2], 대학 내 간호교육에서도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 및 미래 새로운 질환을 대비한 간호교육에 애쓰고 있다[1]. 이와 더불어 보건의료 현장에서 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간호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3].

간호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간호사로서의 사명과 전문인의 소양을 갖추고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을 헌신하고 주어진 직무완성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성을 길러야 한다. 인성은 사회발전의 토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핵심 역량이다. 특히 간호사의 인성은 간호전문직관 확립의 밑바탕이 되고 임상에서 윤리적인 의사결정과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4]. 간호를 제공받는 대상자들은 자신의 간호사가 좋은 간호사이길 바라는데, 좋은 간호사는 전문가로서의 탁월한 임상실무 능력 뿐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도덕성과 윤리성을 포함한 인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4].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이 대학생활 중 인성적 자질을 발전시켜 전문간호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5] 학생 개인의 경험이 인성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 등에 다양하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있는 변수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전문직업인으로서 간호사에게 과학적 지식과 실무역량뿐만 아니라 올바른 자기인식과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자질이 된다. 또한 다

양한 의료인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감능력은 중요하며 의사소통의 첫 번째 요소로 볼 수 있다.

자기인식이란 자신의 내적 사고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간호사가 간호대상자에 대해 지니고 있는 낙인을 감소시키고, 어려운 문제를 지닌 대상자를 피하지 않도록 하며 간호수행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6]. 올바른 자기인식은 역전을 방지하고 대상자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7]이므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낙관적인 신념을 가져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8].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면 타인에 대한 공감을 더 잘 한다고 한다[9]. 자아존중감이 대상자 간호의 질에도 영향을 주는 차원에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노력을 대학 입학 후 가능한 빠른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10]고 한다. 자아존중감은 학업, 실습 적응도,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므로[11] 간호대학 신입생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측정해 보는 것은 분명 인성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공감은 상대방과 동일한 위치에서 상대의 입장과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으로 돌봄을 실천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며 공감능력이 높은 간호사는 양질의 간호를 제공한다[12].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대리적으로 타인의 감정을 경험하는 공감적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 많은 간호학자들은 간호교육을 통해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13,14]. Ryu[10]는 공감은 간호사의 중요한 역량으로 교육에 의해 향상될 수 있으며 문학작품을 활용한 독서활동을 통해 공감능력이 증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간호는 인본주의적이고 이타주의적인 윤리적 가치관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간호사는 자신의 인성적 특성과 가정환경 그리고 학교교육을 통해 간호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며 임상실무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15]. 좋은 간호사의 중요한 역량으로는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무능력과 도덕성 및 윤리성을 가진 바람직한 인성을 갖추어야 한다[5]. 현재까지의 간호교육에서는 인지적 측면의 학습성과인 지식 교육은 강조되어 왔으나 정의적 측면의 인성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16].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성 연구도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선행연구로는 인성교육의 중요도[17], 대인관계와 대학생활 적응[18], 비판적 사고성향과 전문

직 자아개념[19],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민감성[16], 간호전문직관과 자기효능감[20], 의사소통 능력과 전공 만족도 및 가족건강성[21] 등 다양한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 인성 함양을 위한 증진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학과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어려운 입시환경과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으나 대학입학 후에도 비대면과 온라인 수업진행으로 교수-학생간의 관계형성 및 교수들과의 지지체계 형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과 인성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간호대학생의 인성 증진을 위한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과 인성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에 따른 인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과 인성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과 인성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B 대학 간호학과에 입학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2021년 3월 개강 주에 실시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Win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다중회귀 분석을 위해 효과크기(f)=0.15, 유의수준(α)=.05, power($1-\beta$)=.90, 관련 변인의 수를 5

로 하였을 때 116명이 산출되었다. 1학년 신입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203부를 분석하여 표본 수는 충족된 것으로 사료된다.

2.3 연구도구

2.3.1 자기인식

자기인식은 Fenigstein et al.[22]의 도구를 Eun[23]이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사적 자기인식 9문항, 공적 자기인식 5문항, 사회적 불안 6문항으로 총 20문항 세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인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Eun[2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7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68이었다.

2.3.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24] 도구를 Jon[25]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 5문항과 부정적 태도 5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Jon[2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2.3.3 공감

공감은 Davis[26]의 대인간 반응성 지수 검사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Park[27]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인지적 공감 14문항, 정서적 공감 14문항으로 총 28문항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2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78이었다.

2.3.4 인성

인성은 Lee et al.[28]이 개발한 대학생용 바롬인성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60문항으로 인지영역 23문항, 정의영역 25문항, 행동영역 12문항으로 총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5이었다.

2.4 자료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Version 20.0 프로그램 [29]을 이용하여 주요 변수에 대한 정규분포 여부를 Shapiro-Wilk test를 통하여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 인성의 수준은 기술 통계로 분석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 인성의 차이는 t-test/ANOVA로 분석하였다. 사후 분석은 Scheffe 분석을 하였다. 또한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과 인성 및 인성의 하위영역의 차이는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분석은 Scheffe 분석을 하였다.
- 종속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 분석 후 회귀 표준화 잔차 분석 및 Durbin-Watson 지수를 통하여 회귀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IRB-202102-HR-039).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동의를 하는 자는 동의서에 서명한 후 설문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였다. 연구 도중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중단할 수 있음을 공지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는 모두 203명으로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21세 이하의 학생이 75.9%(154명)이며 25세 이상의 비율은 14.8%(30명)이었다. 남학생의 비율은 13.8%(28명)이었고, 종교가 있는 학생이 38.4%(78명)이었다. 간호학 전공을 본인이 선택한 경우가 95.6%(194명)이었으며 간호학과 입학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이 한 명도 없이 90.7%가 만족이상이었다.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에서도 불만족 없이 만족이상인 88.2%로 간호학과

대학생활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교 학업성취도의 경우 보통 이상이 94.6%를 나타내었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03)

Variables	Categories	n	%
Age	<20	16	7.9
	20-21	138	68.0
	22-24	19	9.4
	25-29	13	6.4
	>30	17	8.4
Sex	Male	28	13.8
	Female	175	86.2
Religion	Yes	78	38.4
	No	125	61.6
Department of major	Self	194	95.6
	Parents	9	4.4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	98	48.3
	Satisfied	86	42.4
	Moderate	19	9.3
Expectation of university life	Very satisfied	82	40.4
	Satisfied	97	47.8
	Moderate	24	11.8
Levels of high school achievement	Excellent	3	1.5
	Good	58	28.6
	Moderate	131	64.5
	Low	11	5.4

3.2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 및 인성 정도

대상자의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과 인지영역, 정서영역, 행동영역 및 인성에 대한 수준은 Table 2와 같다. 자기인식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54점이었으며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2.72점 이었고 공감은 5점 만

Table 2. The descriptive values of study variables (N=203)

Variables	Mean±SD	Scale
Self-awareness	3.54±0.40	Max 5
Self-esteem	2.72±0.22	Max 4
Empathy	3.25±0.28	Max 5
Character	Knowing factor	4.67±0.56 Max 6
	Feeling factor	5.00±0.53 Max 6
	Behaving factor	4.27±0.78 Max 6
	Total	4.65±0.54 Max 6

점에 3.25점 이었다. 인성은 6점 만점에 4.65점 이었으며, 인지영역은 4.67점, 정의영역은 5.00점, 행동영역은 4.27점으로 정의영역이 가장 높았다.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 및 인성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검증을 살펴본 결과 자기인식은 간호학과 입학에 대한 만족도(F=3.141, p=.04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자아존중감은 간호학과 주 결정자(F=5.011, p=.026)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성에서는 연령(F=2.897, p=.023), 종교(F=5.393, p=.021), 간호학과 입학 만족도(F=5.803, p=.004) 및 고등학교 학업성취도(F=2.837, p=.039)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상자의 연령이 20세 미만이고 종교가 있으며 간호학과 입학에 매우 만족하고 고등학교 학업성취도가 좋은 경우에 인성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에 대하여 사후 분석 결과 그룹 간 차이가 없었다(Table 3).

3.4 제 변수와 인성 및 인성 하위영역과의 차이검증

대상자의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의 정도에 따라 인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세 그룹(높은 군, 중간 군, 낮은 군)으로 분류한 뒤 인성의 하위영역 및 인성과의 평균차이를 분석하였다. 인성의 인지영역은 자기인식(F=8.474, p=.000), 자아존중감(F=14.571, p=.000), 공감(F=12.662, p=.000)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의영역은 자아존중감(F=8.248, p=.000)과 공감(F=9.536 p=.000)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행동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성은 자아존중감(F=8.717, p=.000)과 공감(F=8.647,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자기인식이 높은 군이 낮은 군보다 인지영역 인성정도가 높았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군과 중간 군이 낮은 군보다 인지영역, 정의영역, 전체 인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도 높은 군과 중간 군이 낮은 군보다 인지영역, 정의영역, 전체 인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3. Difference in Variables level by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03)

Variables	Categories	Self-awareness		Self-esteem		Empathy		Character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Age	<20	3.58±0.45	1.459 (.216)	2.69±0.25	.353 (.842)	3.31±0.36	.415 (.797)	4.96±0.46	2.897 (.023)
	20-21	3.52±0.43		2.71±0.21		3.24±0.29		4.57±0.57	
	22-24	3.71±0.26		2.75±0.23		3.22±0.21		4.66±0.50	
	25-29	3.60±0.24		2.72±0.23		3.30±0.28		4.70±0.40	
	>30	3.42±0.29		2.76±0.22		3.24±0.25		4.88±0.32	
Sex	Male	3.48±0.47	2.811 (.095)	2.73±0.23	.831 (.363)	3.22±0.23	1.231 (.269)	4.64±0.46	.286 (.593)
	Female	3.55±0.39		2.71±0.22		3.25±0.29		4.65±0.55	
Religion	Yes	3.60±0.38	.936 (.334)	2.74±0.21	.025 (.875)	3.25±0.26	1.059 (.305)	4.71±0.44	5.393 (.021)
	No	3.50±0.41		2.70±0.22		3.24±0.30		4.61±0.59	
Department of major	Self	3.53±0.40	1.587 (.209)	2.71±0.21	5.011 (.026)	3.25±0.29	1.386 (.241)	4.66±0.53	.369 (.544)
	Parents	3.77±0.33		2.80±0.32		3.25±0.20		4.31±0.62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	3.56±0.36	3.141 (.045)	2.72±0.21	1.490 (.228)	3.26±0.26	.140 (.869)	4.77±0.50	5.803 (.004)
	Satisfied	3.57±0.40		2.73±0.23		3.24±0.29		4.54±0.58	
	Moderate	3.32±0.54		2.64±0.20		3.24±0.36		4.46±0.38	
Expectation of university life	Very satisfied	3.59±0.37	2.585 (.078)	2.73±0.22	1.150 (.319)	3.22±0.28	.791 (.455)	4.74±0.55	2.347 (.098)
	Satisfied	3.54±0.42		2.70±0.21		3.25±0.27		4.61±0.53	
	Moderate	3.38±0.37		2.77±0.22		3.31±0.34		4.50±0.52	
Levels of high school achievement	Excellent	3.70±0.26	.561 (.642)	2.60±0.17	1.631 (.183)	3.25±0.49	.069 (.976)	4.58±0.84	2.837 (.039)
	Good	3.58±0.45		2.76±0.21		3.26±0.25		4.82±0.49	
	Moderate	3.52±0.38		2.70±0.21		3.24±0.30		4.59±0.53	
	Low	3.54±0.39		2.74±0.29		3.23±0.30		4.49±0.67	

Table 4. Difference between Variables and Character

(N=203)

Variables	Categories (N)	Character-Knowing		Character-Feeling		Character-Behaving		Character	
		Mean±SD	F (p)	Mean±SD	F (p)	Mean±SD	F (p)	Mean±SD	F (p)
Self-awareness	High(70) ^a	4.86±0.54	8.474 (.000) a>c	5.11±0.49	2.391 (.094)	4.30±0.84	.364 (.695)	4.76±0.52	2.358 (.097)
	Middle(73) ^b	4.65±0.53		4.98±0.47		4.20±0.59		4.61±0.46	
	low(60) ^c	4.47±0.56		4.92±0.61		4.30±0.91		4.56±0.64	
Self-esteem	High(48) ^a	4.85±0.50	14.571 (.000) a,b>c	5.12±0.44	8.248 (.000) a,b>c	4.36±0.67	2.116 (.123)	4.78±0.45	8.717 (.000) a,b>c
	Middle(76) ^b	4.82±0.53		5.12±0.53		4.35±0.72		4.76±0.50	
	low(79) ^c	4.42±0.54		4.82±0.52		4.13±0.88		4.46±0.58	
Empathy	High(65) ^a	4.89±0.52	12.662 (.000) a,b>c	5.14±0.48	9.536 (.000) a,b>c	4.41±0.74	2.314 (.101)	4.82±0.46	8.647 (.000) a,b>c
	Middle(74) ^b	4.68±0.55		5.08±0.53		4.27±0.76		4.67±0.56	
	low(64) ^c	4.43±0.52		4.78±0.49		4.11±0.82		4.44±0.53	

Table. 5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N=203)

Variables	Self-awareness	Self-esteem	Empathy	Character-Knowing	Character-Feeling	Character-Behaving	Character
Self-awareness	1	.265**	.519**	.268**	.173 [†]	-.035	.133
Self-esteem		1	.434**	.315**	.264**	.181**	.282**
Empathy			1	.359**	.316**	.186**	.318**
Character-Knowing				1	.733**	.586**	.869**
Character-Feeling					1	.566**	.854**
Character-Behaving						1	.871**
Character							1

[†]p<.05, **p<.01

Table 6. Factors associated with Character

(N=203)

Variables	B	β	t	p	VIF	Tolerance	Durbin-Watson
Constant	2.165		4.459	.000			2.164
Empathy	0.441	0.233	3.349	.001	1.236	0.809	
Major satisfaction	0.222	0.207	3.275	.001	1.013	0.984	
Levels of high school achievement	0.207	0.174	2.756	.006	1.021	0.979	
Age	-0.174	-0.151	-2.390	.018	1.017	0.984	
Self-esteem	0.369	0.149	2.120	.035	1.257	0.795	

F value : 11.620, p-value: <.001, R² : 0.228, adjusted R² : 0.208

3.5 대상자의 인성과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인성과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지영역에서는 자기인식($r=.268, p<.01$), 자아존중감($r=.315, p<.01$), 공감($r=.359, p<.01$)과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정의영역에서는 자기인식($r=.173, p<.05$), 자아존중감($r=.264, p<.01$), 공감($r=.316, p<.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행위영역에서는 자아존중감($r=.181, p<.01$)과 공감($r=.186, p<.01$)이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인지, 정의, 행동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인성에서는 자아존중감($r=.282, p<.01$)과 공감($r=.318, p<.01$)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인성은 행동영역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았다($r=.871, p<.01$)(Table 5).

3.6 대상자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인성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연령, 종교, 간호학과 입학만족도, 고등학교 학업성취도를 더미 변수 처리하여 포함하였다. 인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자아존중감, 공감을 독립변수로 처리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Dubin-Watson 통계량이 2.164로 오차의 자기 상관이 없고 회귀 표준화 잔차의 등분상과 정규 분포 가정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모두 1.017~1.257로 기준치 10 이하였고 공차한계(tolerance)는 0.795~0.984로 0.1 이상으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공감($\beta=.233, p=.001$), 입학만족도($\beta=.207, p=.001$), 고등학교 학업성취도($\beta=.174, p=.006$), 연령($\beta=-.151, p=.018$), 자아존중감($\beta=.149, p=.035$)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변수들은 인성을 20.8%를 설명하였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공감으로 나타났다 (Table 6).

4. 논의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력 중 하나인 간호인력은 보건의료인으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1]. 또한 간호교육의 패러다임이 성과중심으로 변화되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간호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3]. COVID-19로 어렵고 힘든 고3과정을 마치고 간호학과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자신에 대한 올바르게 확고한 자기인식, 교수-학습자간의 관계형성, 교우와의 인간관계 및 대학생활을 통한 자아존중감과 공감 능력 증진을 통하여 보건의료 현장에서 역량과 인성을 갖춘 간호사로 성장해 가도록 돕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에 입학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과 인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자기인식 수준은 3.54(최대 5점)로 나타났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Kang[6]의 연구에서는 3.47점, Nam[30]의 연구에서는 3.42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의 수준이 높았다. 간호대학생이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전문직 간호사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인식 능력이 중요[30]하므로 자신의 행동과 신념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아존중감 수준은 2.72(최대 4점)로 1학년 대상의 Ryu[10] 연구에서도 2.72로 같은 수준이었다. 3,4학년 대상의 Park & Chung[9]의 연구에서는 2.3으로 본 연구보다 낮았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새로운 경험에 대해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여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므로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을 통한 자신의 수용과 함께 자아존중감을 높여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공감 수준은 3.25(최대 5점)로 Park[5]의 연구에서 1학년의 경우 3.48이었고 Ryu[10]의 연구에서는 3.55이었다. 졸업학년을 대상으로 한 Ji[31]의 연구에서는 3.68이었으며, 3,4학년 대상의 Park & Chung[9]의 연구에는 3.4이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공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므로 신입생들의 공감 지수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인성수준은 4.65(최대6점)이었는데 간호학과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18]의 평균 4.42 수준보다는 높았으나 3,4학년 대상 연구[16, 32]의 평균은 4.69~4.71수준이어서 대상자의 수준이 좀 낮았다. 이는 학생들의 잠재력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키워주는 인성 교육을 필수로 여겨 국가차원에서 2014년 인성교육진흥법의 통과로 2015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의무시행[33]으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인성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인성 수준이 상승되었으므로 긍정적인 변화로 여겨진다. 하지만 3,4학년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이므로 4년간의 대학교 과정을 통해 인성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하위영역별 평균을 살펴보면 정의영역이 5.00점으로 가장 높았고 행동영역이 4.27로 가장 낮았다. 이는 Koo & Ryu[16], Sim & Bang[18], Lee & Kwag[34]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여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이 부족한 상황을 알 수 있어 학생들에게 전공과 연계된 봉사활동 등을 통한 행동적 프로그램의 참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인성교육은 취약한 윤리적 행동 및 습관 성취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행동적 접근의 추구 및 외부 사회 환경 및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한 자신과 타인인식,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인지적 접근이 요구된다.

일반적 특성과 변수와의 차이검증에서는 자기인식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입학 만족도 ($F=3.141, p=.045$)이었다. Kang[6]의 연구에서는 주거형태, 연령, 학업성취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간호학과 주결정자($t=5.011, p=.026$)이었다. Kang & Ko[32]의 연구에서는 성별과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 성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공감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가 없었는데 Hong[35]의 간호대학생 공감연구에 대한 국내 동향 분석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학년, 성별, 전공 만족도 등에서 차이를 보인 연구도 있고 학년, 종교, 지원동기, 학업 성적 등에서 차이가 없는 연구도 많았다. 인성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로는 연령 ($F=2.897, p=.023$), 종교($t=5.393, p=.021$), 입학 만족도($F=5.803, p=.004$), 고등학교 학업성취도($F=2.837, p=.039$)이었다. Koo & Ryu[16]의 연구에서는 종교, 간호학과 결정자, 학과만족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Lee & Kwag[34]의 연구에서는 성별, 종교, 건강상태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Sim & Bang[18]의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만 유의한 변수이었으며 Nam et al.[21]의 연구에서는 대학진학 동기, 교과 외 활동, 수업참여도에 따라 인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일반적 특성은 연구대상자의 주어진 여건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 변수와의 차이검증 결과 인성의 인지영역에서는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정의영역에서는 자아존중감과 공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행동영역에서는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학생들이 마음은 있고 머리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이 절실하게 요구됨을 제언한 연구[16,18]와 유사한 결과로 사료된다.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과 인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감,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자기인식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인식과 공감은 순 상관관계($r=.519,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Kang[6]의 연구와 같이 자기인식이 높을수록 공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공감도 순 상관관계 ($r=.434, p<.01$)를 보여 Nam[30]의 연구, Park & Chung[9]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자기인식은 인성의 인지영역($r=.268, p<.01$)과 정의영역($r=.173, p<.01$)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행동영역($r=-.035$)에서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대상자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공감, 간호학과 입학만족도,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연령,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0.8%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민감성[16]은 인성의 43.3%를 설명하였고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21]에서는 의사소통능력, 전공만족도, 가족건강성이 55.6%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보건계열학생 인성 연구에서는 인성의 행동영역 수준($\beta=.17, p<.001$)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잘한다는 연구[36]와 일반대학생의 인성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37-39]에서는 공감능력, 자기효능감, 자아정체성, 학교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도덕성 등이 인성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이었다. 그러므로 인성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공감능력 증진, 정체성 형성교육 및 가치관과 도덕성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인성은 가치관을 담은 그러이므로 대학 신입생이 자신이 속한 사회를 이해하고 도전하며 사회적 소명의식을 지니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인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사회생활과 관련된 요소 대부분이 해당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천능력을 갖춘 전문 간호 인력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2021년 3월 B 대학 간호학과 신입생 203명을 대상으로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과 인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인성은 4.65점(최대 6점)이었으며, 연령, 종교, 간호학과 입학만족도,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 공감이 인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공감이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으며, 간호학과 입학만족도,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연령, 자아존중감으로 설명력은 20.8%이었다. 자기인식은 자아존중감, 공감과 상관관계는 높았으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연구대상자의 편의표출로 인하여 전체 간호대학 신입생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점을 가진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내·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보건 의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의 중요구성원으로 인성을 가진 간호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S. J. Kim, K. Y. Kim, B. H. Choi, M. L. Song, "A Study on the Demand of K-Nursing in Southeast Asian Nursing Colleges to Activate International Exchange Convergence in the Untacked Er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12, pp.429-438, 2020.
DOI: <http://doi.org/10.15207/JKCS.2020.11.12.429>
- [2] E. G. Oh, "Perspectives on Nursing Profession for a Post-COVID-19 New Normal",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32 No. 3, pp.221-222, June 2020.
DOI: <https://doi.org/10.7475/kjan.2020.32.3.221>
- [3] J. G. Lee, W. J. Kim, J. G.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commi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who gave non-face-to-face online lecture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2), pp. 412-419, 2020.
DOI: <http://doi.org/10.5762/KAIS.2020.21.11.412>
- [4] M. H. Kwon, J. W. An, "Subjectivity Perceptions on the Nurse's Admirable Characte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SSSS*, Vol. 43, pp.121-140, Dec. 2018.
<http://www.riss.kr/link?id=A105964175>
- [5] J. H. Park, "Essential competency of new graduate registered nurse that has been perceived by experienced senior nurses", *AJMAHS*, 7(1), pp.567-575, 2017.
<http://www.riss.kr/link?id=A103595681>
- [6] M. O. Kang, "A Study on Relationship among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Empath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History*, 47, pp207-238, 2015.
DOI: <http://doi.org/10.35504/kph.2015..47.008>
- [7] H. J. Kim, M. S. Lee, "Factors Influencing Empathy in Nursing Students in Korea", *J Korean Acad Soc Nurs Educ*, Vol.21 No.2, pp.237-245, May, 2015.
DOI: <http://dx.doi.org/10.5977/ikasne.2015.21.2.237>
- [8] S. J. Lee, J. H. Yu,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and Career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2(3), pp589-607, 2008.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763724>
- [9] J. H. Park, S. K. Chung,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Empathy,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1), pp.7698-7707, 2015.
DOI: <http://doi.org/10.5762/KAIS.2015.16.11.7698>
- [10] Y. M. Ryu,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on self-esteem, character strengths, emotional awareness, and empathy in nursing students*, Docto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pp.9-10, Korea, 2015. <http://www.riss.kr/link?id=T13744005>
- [11] E. Y. Ja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responses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001.
<http://www.riss.kr/link?id=T8069151>
- [12] J. A. Park, "Level of empathy and influencing factors of empath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22), pp.781-798, 2018.
DOI: <http://doi.org/10.22251/jlcci.2018.18.22.781>
- [13] M. R. Alligood, "Rethinking empathy in nursing education: Shifting to a developmental view", *Annual Review of Nursing Education*, 3, pp.299-312, 2005.
<http://lps3-search-proquest-com.libproxy.bu.ac.kr/docview/216907419?pq-origsite=summon>
- [14] C. T. Ozcan, F. Oflaz, B. Bakir, "The effects of a structured empathy course on the students of a medical and a nursing school",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59, pp.532-538, 2012.
DOI: <http://doi.org/10.1111/j.1466-7657.2012.01019.x>
- [15] Y. M. Kwon, "A study on moral judgement and ethical value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8(1), pp.17-28. 2002.
<http://www.riss.kr/link?id=A100292122>
- [16] O. K. Koo, Y. M. Ryu, "The Influence of Ethical Values and Ethical Sensitivity on Characte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9), pp.219-228, 2018.
DOI: <http://doi.org/10.14400/JDC.2018.16.9.219>
- [17] M. H. Seung, E. J. Kim, "An Analysis on College Students'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Personality

- Education, Personality Development Level and their Demand for Personality Education”, *Journal of Moral & Ethics education*, 38, pp.177-202, 2015.
<http://www.riss.kr/link?id=A101758265>
- [18] S. S. Sim & M. R. Ba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2), pp.634-642,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12.634>
- [19] M. H. Lim, “Effects of Charact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8), pp.560-568, 2016.
 DOI: <http://doi.org/10.5762/KAIS.2016.17.8.560>
- [20] M. H. Jeong, “Effects of Character,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Efficacy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9), pp.302-314, 2017.
 DOI: <http://doi.org/10.5762/KAIS.2017.18.9.302>
- [21] S. M. Nam, J. S. Park, E. J. Shin, “Factors Influencing Characte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8), pp.56-65, 2019.
 DOI: <http://doi.org/10.5762/KAIS.2019.20.8.56>
- [22] A. Fenigstein, M. F. Scheier, A. H. Buss, “Public and private self 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 Consult Clin Psychol*, 43(4), pp.522-527, 1975.
 DOI: <https://doi.org/10.1037/h0076760>
- [23] H. G. Eun, “Adolescents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interpersonal skills and the satisfac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 difference among the grades and between the sexes”, *Korean J Youth Couns*, 9, pp.136-157, 2001.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6b4de8a0cef85f366aae8a972f9116fb
- [24]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http://www.riss.kr/link?id=M2571511>
- [25] B. J. Jon,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a collection of treatises*, Vol. 11, pp.107-130, 1974. <http://www.riss.kr/link?id=A3215438>
- [26] M. H. Davis,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 Pers Soc Psychol*, 44(1), pp.113-126, 1983.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44.1.113>
- [27] S. H. Park, *Empathy-yesterday and today* Seoul, Hakjisa, 2004. <http://www.riss.kr/link?id=M9291892>
- [28] Y. S. Lee, H. Y. Kang, S. J. Kim, “A validation study of the character index instrument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31, pp.261-282, 2013.
 URL: <http://www.riss.kr/link?id=A99780462>
- [29] SPSS IBM Corp. Released 2011.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20.0. NY : IBM Corp.
<https://ibm-spss-statistics.software.informer.com/20.0/>
- [30] Y. J. Nam, *The Influence of Self-Awareness, Self-Acceptance and Empathy on Interperson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2017.
<http://www.riss.kr/link?id=T14439134>
- [31] E. J. Ji,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Empathic Ability on Communication Ability in Senior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3), pp.1685-1697, 2014.
<http://www.riss.kr/link?id=A101601471>
- [32] K. S. Kang, Y. S. Ko “Effects of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Korean J Health Commun*, 11(2), pp.179-189, 2016.
 DOI: <http://doi.org/10.15715/kjhcom.2016.11.2.179>
- [33] M. S. Cho, “Trends in Studies on Character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and Meta-Analysis on Effects of Its Program”, *Culture and Convergence*, 39(3), pp.101-32, 2017.
 DOI: <http://doi.org/10.33645/cnc.2017.06.39.3.101>
- [34] M. R. Lee, Y. K. Kwag,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7), pp.491-499, 2017.
 DOI: <http://doi.org/10.35873/aimahs.2017.7.7.046>
- [35] S. M. Hong, “A Literature Review of Research on Empathy of Korean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HSS21)*, 11(5), pp. 369-383, 2020.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1.5.27>
- [36] M. J. Jun, E. K. Noh, “The Convergence Study effected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health-related college”, *Journal of the Korean Convergence Society*, 9(4), pp.433-442, 2018.
 DOI: <http://doi.org/10.15207/JKCS.2018.9.4.433>
- [37] S. H. Um, K. W. Son, “An Empirical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on moral personality: Focus on Academic Stress,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Identity” *Journal of Moral & Ethics Education*, 62, pp. 202-232, 2019.
 DOI: <http://doi.org/10.18338/kojme.2019.62.203>
- [38] Y. M. Oh, H. J. Moon, “The Effect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mpathy, Self-efficacy on Ingenious Identity”,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22(4), 89-110, 2018.
 DOI: <http://doi.org/10.22590/ecee.2018.22.4.89>
- [39] N. Lee, J. A. Lim, “Relative potency of analytic self-esteem and Morality of college students on their character”,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7(1), pp. 163-183, 2019.
 DOI: <http://doi.org/10.31352/JER.17.1.163>

구 옥 희(Ok-Hee Koo)

[정회원]



- 1989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00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간호관리, 간호리더십, 간호윤리, 인성, 전문직관